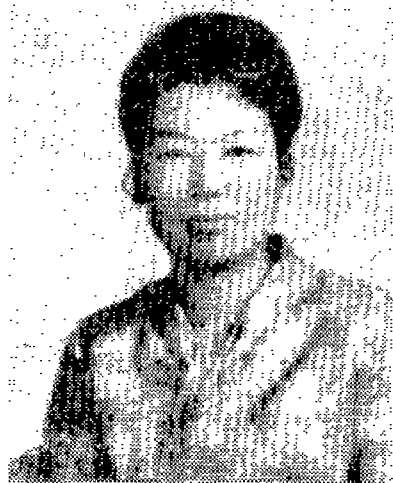


姜潤姬

제1부회장



〈강 윤 희 교수
고려의대 간호학과장〉

『다시 제1부회장을 맡으면서 꼼꼼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時期尙투라고 생각되는군요. 餘力이 있으신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아이들에겐 아직 자상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때에 어떻게 가정과 학교와 協會일을 소신껏 해나갈 수가 있으며 위에 계신 회장님을 잘 보필해 드릴 수가 있을는지요.』

이렇게 겸손한 걱정을 보이시는 姜潤姬 제1부회장은 「그러나 주어진 임기동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태를 주시하면서 회원의 기대에 어긋남 없도록 일해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작년 회장 不在時(백시코총회참석)에 겪은 故주현옥 순직사건을 생각하신다.

『많은 경험을 얻었지요. 협회의 使命이 어떻다는 것을 실감했고 단결된 회원들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한 사건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간호사업이 본래 人間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니만큼 우리 협회는 어느단체 보다도 단결된 「팀웍」을 이뤄 한 부분도 결여됨이 없이 더욱 강화시켜 권익을 옹호해야 되겠고 고도화 되가는 理論과 實際를 잘 병행시켜 참신한 간호원상을 사회에 구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달하는 강부회장은 워트 회장님이 계시고 또 각부서별로 책임을 진 쟁쟁

한 이사님들이 있어 마음 든든하다며 집행부의 열의에 기대가 크다고 말하기도.

경기도 開城公立高等學校를 나와 서울대부속간호학교, 덕성여대 영문과를 거쳐 미국 「미네소타」대학원에 유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1961년엔 서울대학병원 간호과장도 역임한바 있으며 그후 교육계로 轉任하여 현재 고려의대 간호학과장직을 맡고있다.

공기좋은 수유리에 70坪남짓한 自宅을 두고, 언론인 李哲範씨와의 사이에 1女2男.

3돌잡이 막내의 제똥에 살달이 난다는 姜부회장(44세)은 사농고 미처 집에 옮기지 못한 少年少女文學全集이 책상위에 놓여있어 따뜻한 母性的의 일면을 강하게 엿볼 수 있었다.

急變하는 世態를 注視
회원옹호에 힘쓰겠다